

## 제 목 : 2025년 1/4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

□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김태정)는 2025년 1/4분기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제조업 생산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은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 제조업은 주요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이 계속되고 있으나, 고용인원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당분간 조선업은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주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은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음식·숙박·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의 부진이 심화되었다.

□ 2025년 1~2월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하며 전분기(24년 4/4분기 +1.5%)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높아진 것에 주로 기인한다.

□ 향후 전남 서남부지역 경기는 제조업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당분간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 등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5년 1/4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

문의처: 한국은행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김상욱

Tel: (061)241-1126 Fax: (061)242-1189 E-mail: mokpo@bok.or.kr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bok.or.kr/mokpo>)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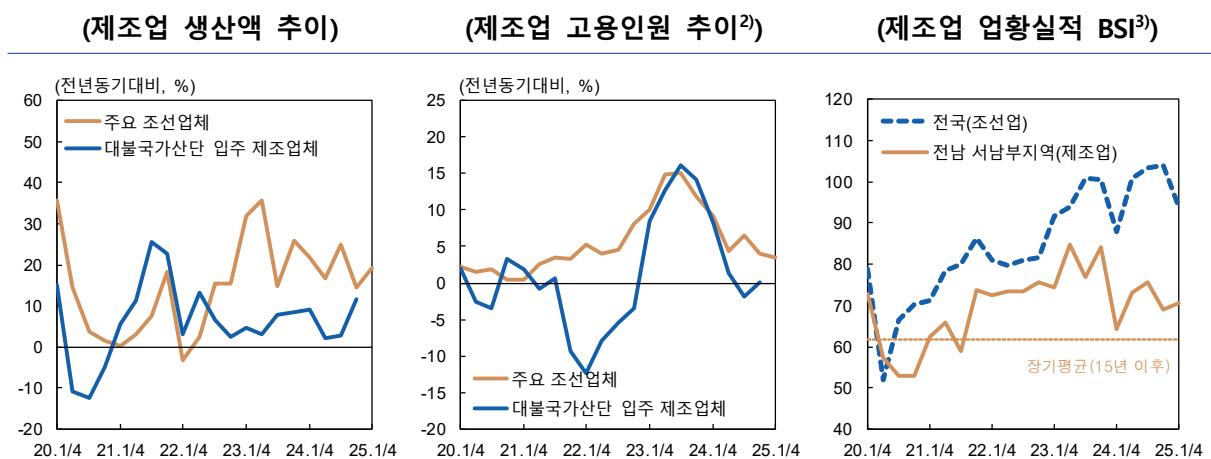
(붙임)

## 2025년 1/4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sup>1)</sup>

### 1. 생산

1. 제조업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2025년 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의 생산액(경상)은 전년동기대비 19.1% 증가하였다. 2022년 이후 수주한 친환경 선박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높은 수준의 생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2~3년간의 건조물량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기간 주요 조선업체의 고용인원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에 그치면서 고용인원 증가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sup>2)</sup> 이는 외국인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주요 조선업체들이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였고, 향후 수주 관련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고용인원 증가보다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경우 2024년 4/4분기 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하였고, 2024년 4/4분기말 고용인원은 전년동기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25년 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 업황실적 BSI도 지난 4/4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1.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 생산 및 고용 동향<sup>1)</sup>



주: 1) 2025년 1/4분기 수치는 1~2월 기준

2) 주요 조선업체는 분기중 평균 고용인원,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는 분기말 고용인원 기준

3) 분기중 월별 수치를 평균한 값을 활용(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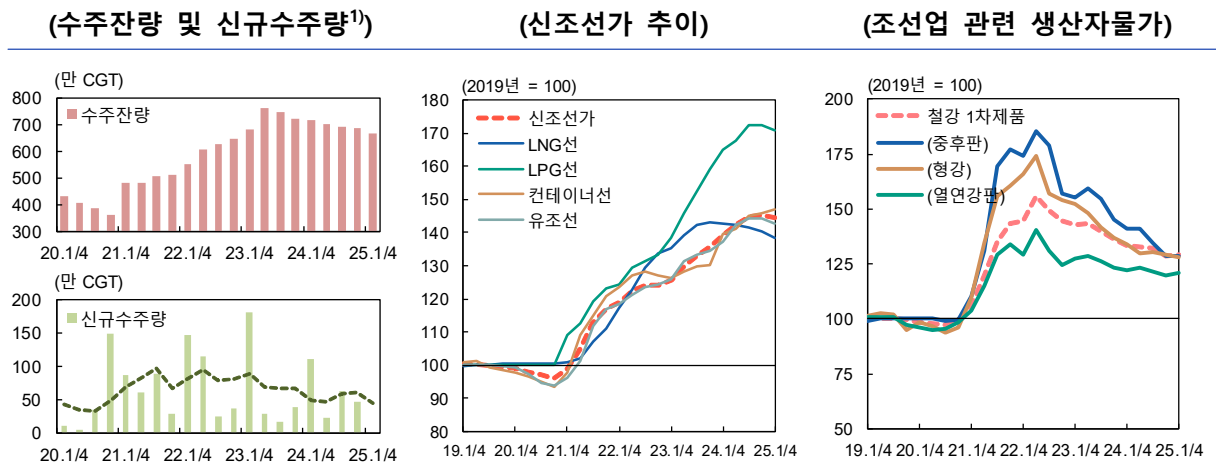
1) 본 자료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2025년 2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동향을 서술하였다.

2) 주요 조선업체의 고용인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4.1/4분기 +9.2% → 2/4분기 +4.4% → 3/4분기 +6.5% → 4/4분기 +4.0% → 25.1~2월 +3.6%

2. 당분간 조선업은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주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은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수주 한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이 본격화되고, 철강 등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 가격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요 조선업체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신규수주 관련해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의 LNG 수출 확대<sup>3)</sup>, 해군력 확충 노력, 중국 조선업 견제<sup>4)</sup>에 따른 반사이익 등은 신규수주에 상방 요인이지만,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인해 교역량 감소를 우려한 선주들의 신규발주 유보는 하방 요인이다. 한편 상승세를 지속하던 신조선가는 2025년 1/4분기 들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의 향후 업황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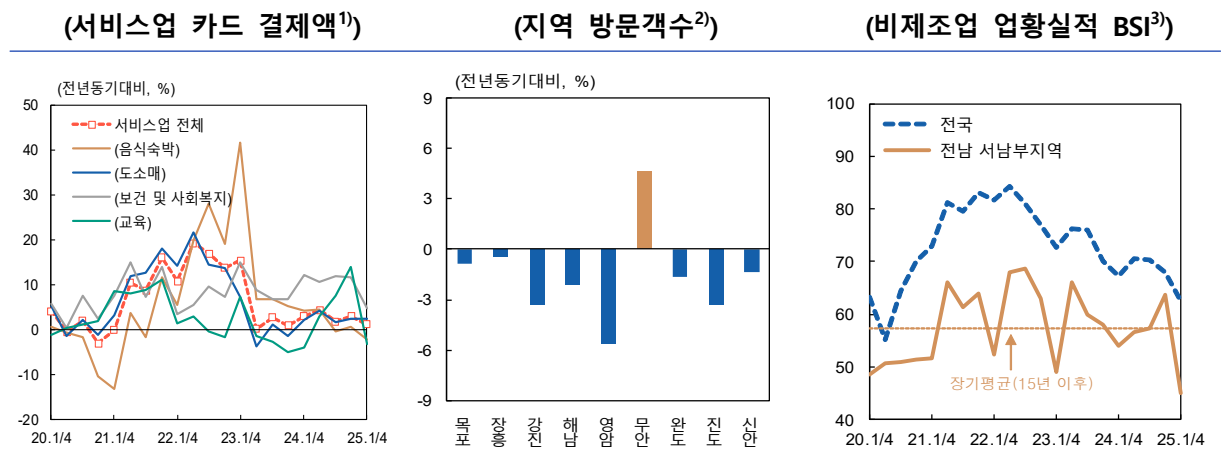
주: 1) 점선은 4분기 이동평균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Clarksons Research

3.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최근 조선업 업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부족<sup>5)</sup>,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대형조선사들이 고가의 친환경 선박 위주로 선별적인 수주에 나서면서 지역내 중소 제조업체들은 충분한 생산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체들의 경우 기술 수준이 낮은 선박 블록 등을 주로 제작하는데 작업 물량이 충분하지 않고, 해외업체들과의 가격경쟁도 치열해서 매출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소 제조업체들도 설비투자,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중단되었던 신규 액화천연가스 수출 허가를 재개하였다.(2025.1월)  
4) 미 국방부는 중국의 134개 조선소를 '중국 군사 기업(블랙리스트)'으로 지정하고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를 주장하였으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시장의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 위슨(WISON) 조선소를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에 등재하였다.(2025.1월)  
5) 친환경 선박의 경우 요구되는 품질 수준이 높아 대형 조선사들이 중소 조선업체에 물량을 발주하기보다는 자체 생산을 선호한다.

**4.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보험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음식·숙박·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의 부진이 심화되었다.** 2025년 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서비스업체의 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였다(3/4분기 +1.8%, 4/4분기 +3.0%). 주력 업종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카드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반면, 음식·숙박업 매출액은 2.1% 감소하였다. 음식·숙박업의 부진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관광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1~2월중 여가관련 서비스업종 카드 매출액도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비제조업 업황실적 BSI도 지난해 4/4분기 대비 하락하였다.

그림 3. 전남 서남부지역 서비스업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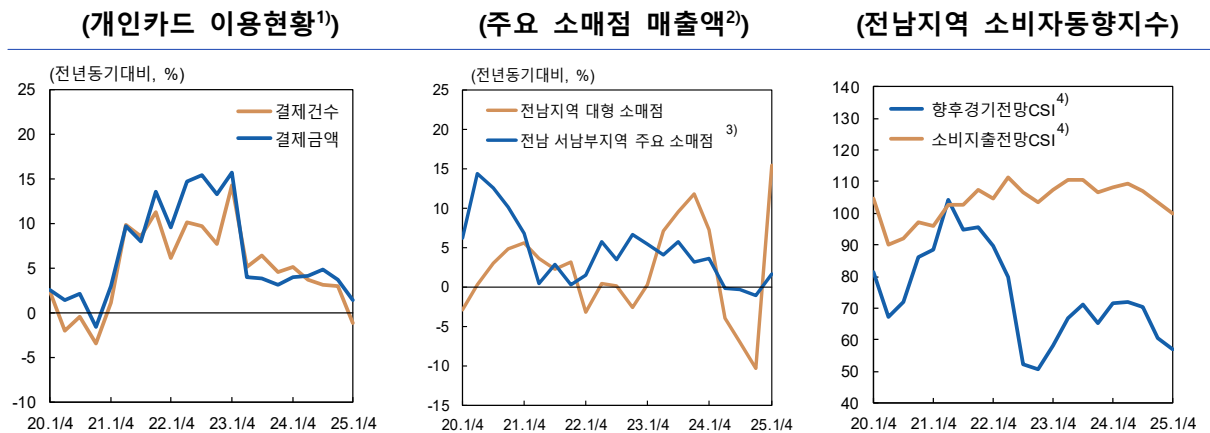
주: 1)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서비스업체에서 신한, 하나, NH농협카드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된 금액 기준  
 2) 2025년 1~2월중 외부방문객수 기준(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해 한국관광공사 추정)  
 3) 분기중 월별 수치를 평균한 값을 활용(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신한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5. 향후 서비스업 업황은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내 서비스업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업황 개선을 더욱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완화적 금융 여건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은 차츰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보증 및 담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업황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 수 요

6. 소비는 개선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포함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개인카드 사용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sup>6)</sup>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0.8% 감소(1~2월중 전남지역 CPI 상승률 2.2% 적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기간 주요 소매점 매출액(경상)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였다.<sup>7)</sup> 한편, 전남지역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 전망 및 소비지출 전망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전남 서남부지역 소비동향 및 소비지출 관련 심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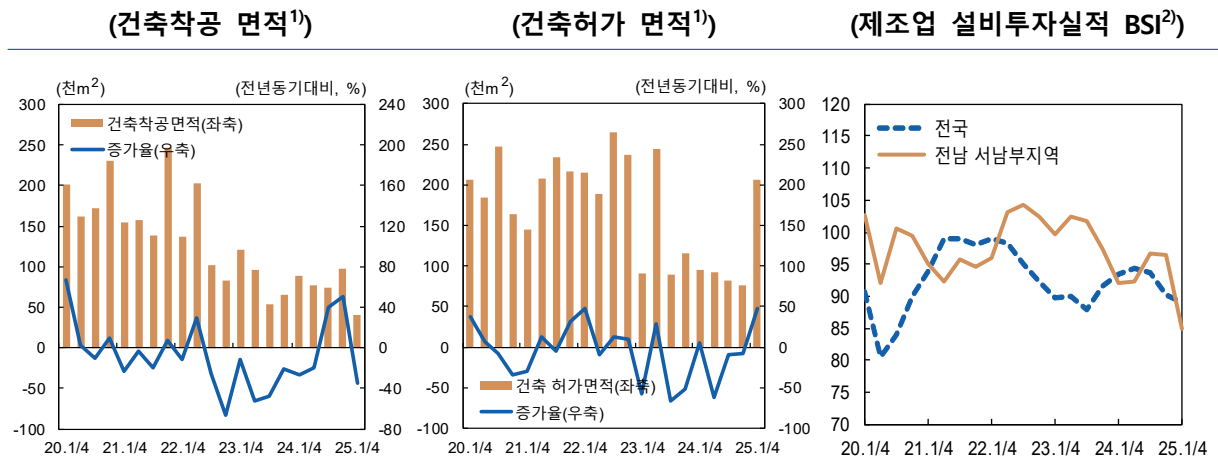
주: 1) 전남 서남부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개인이 신한, 하나, NH농협카드의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기준  
 2) 2025년 1/4분기는 전남지역 대형 소매점의 경우 1월, 전남 서남부지역 주요 소매점은 1~2월 기준  
 3) 대형마트 이외에도 슈퍼마켓 등 소규모 소매점을 포함  
 4)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으로 2025년 2월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간중 평균수치를 활용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신한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소매점

7. 건설투자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1월중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 35.1% 감소하였고 허가면적은 48.5% 증가하였다. 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착공면적이 지속해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업황은 부진한 모습이다. 건설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인건비, 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sup>8)</sup>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도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PF 자금 대출 조건도 점차 강화됨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자금조달 및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전남 서남부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개인이 신한, 하나, NH농협카드의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7) 25.1월 기준 전남지역 대형 소매점 매출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절적 요인(설명절 시기 차이)이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8)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 21.12월 117.37 → 22.12월 125.33 → 23.12월 128.78 → 24.12월 130.12 → 25.2월 130.99

8. 설비투자는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은 향후 업황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설비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주요 조선업체들은 노후설비 교체 위주로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며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2025년 생산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생산설비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설비투자실적 BSI도 지난 4/4분기 대비 하락하였다. 서비스업 또한 내수부진 및 업황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 전남 서남부지역 투자활동(건설 및 설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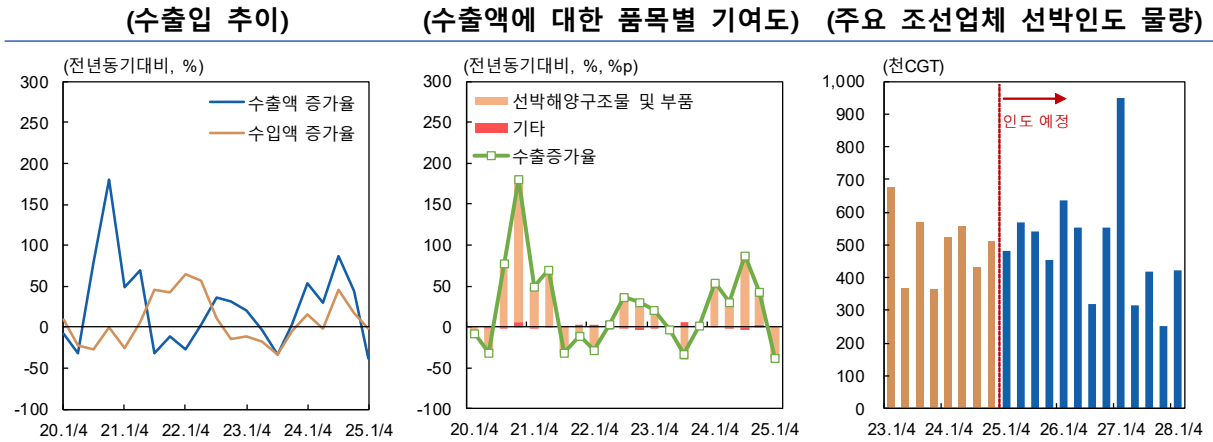


주: 1) 기간중 평균 수치 기준(2025년 1/4분기 증가율은 1월 기준)  
 2) 분기중 월별 수치를 평균한 값을 활용(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 3. 수출입

9. 수출액은 선박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보험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5년 1~2월중 수출액(통관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38.1% 감소하였으나, 향후 인도예정물량이 높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감소로 판단된다. 선박 이외 품목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하였다. 한편,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였는데 품목별로는 화학공업제품(+137.2%), 농림수산물(+28.0%)은 증가한 반면, 철강금속제품(-40.8%), 전자전기제품(-21.1%)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전남 서남부지역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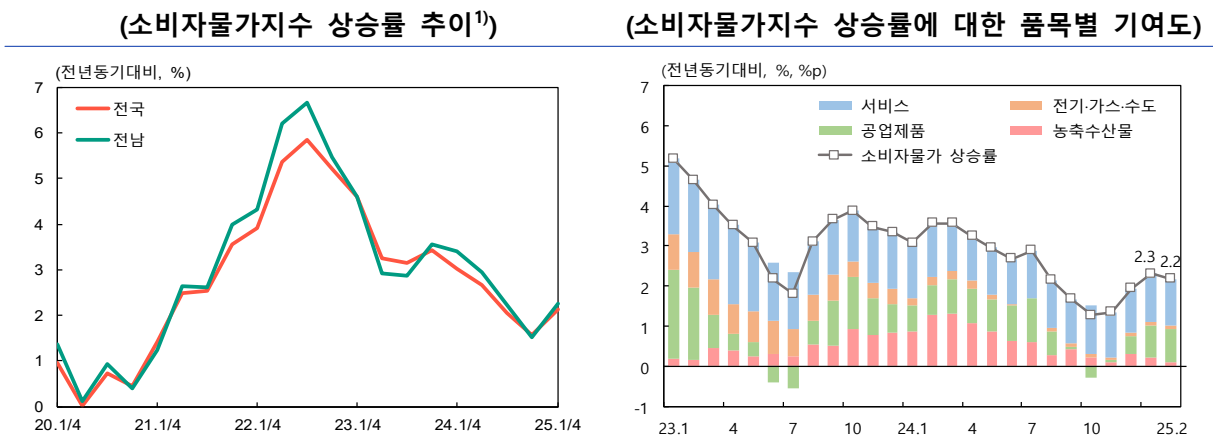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Clarksons Research

## 4. 물가 및 부동산 가격

10. 2025년 1~2월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2%로 전분기(24년 4/4분기 +1.5%)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9) 서비스 물가도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었다.10) 2025년 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상방요인과 낮은 내수 회복세, 정부의 물가안정대책11) 등의 하방요인이 상쇄되면서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12)

그림 7. 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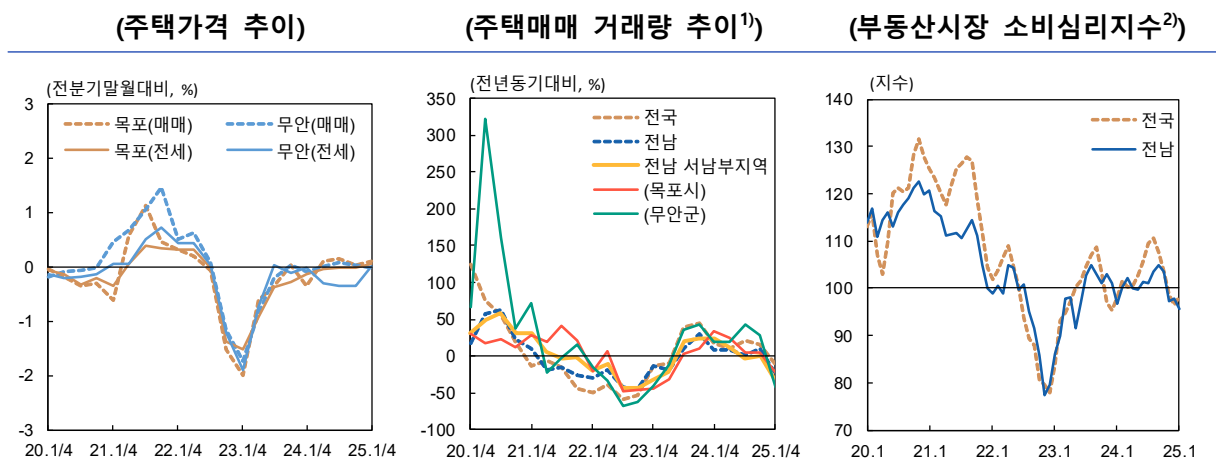


주: 1) 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 계산

9)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 25.1월 +0.34%p → 25.2월 +0.36%p  
 10)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대한 개인서비스의 기여도: 25.1월 +0.40%p → 25.2월 +0.38%p  
 11)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지속,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및 시기 분산·이연 등의 물가대책을 발표하였다  
 12) 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5년중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9%로 전망된다.

11. 2025년 2월중 주택 매매가격은 목포시는 전분기말월대비 소폭 상승(+0.10%) 하였고, 무안군은 소폭 하락(-0.02%)하였다. 전세가격은 목포시가 소폭 상승(+0.03%)하였지만 무안군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1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로 전환하였다. 전남지역 부동산시장(주택, 토지) 소비심리지수도 2024년 3/4분기 이후 소폭 하락하였다. 향후 전남 서남부지역 주택시장은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감소 등 상방리스크와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 지방 부동산 매매 수요 감소<sup>13)</sup> 등의 하방리스크가 혼재하면서 높은 불확실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전남 서남부지역 주택시장 동향



주: 1) 2025년 1/4분기는 10월 기준

2)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지수가 95~114의 값을 가지면 보합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13) 2024년말 기준 전남 서남부지역 미분양 주택은 739호로 적체되어 있다. (2024.1/4분기 712호 → 2/4분기 699호 → 3/4분기 740호 → 4/4분기 739호, 기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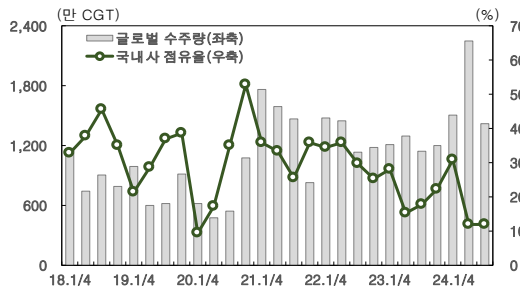
## 전남 서남부지역의 조선업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본 자료는 한국은행 목포본부 김상욱 과장, 김민수 조사역이 작성한 보고서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전남 서남부지역의 조선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2025.1, 한국은행 목포본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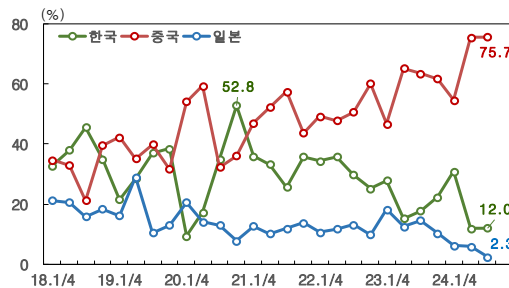
- (국 내) 우리나라 조선업은 최근 해외 수주량 증가의 영향으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의 선박 발주량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노후 선박 교체 주기 도래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조선업이 급성장하며 국내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

글로벌 선박 수주량 및 국내사 점유율



자료: Clark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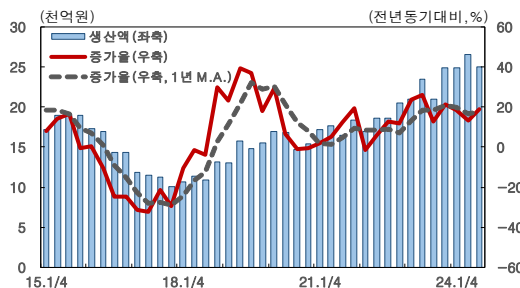
한·중·일 수주 시장 점유율



자료: Clark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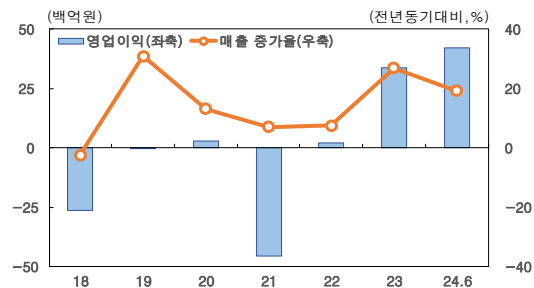
- (전남 서남부지역) 전남 서남부지역의 조선업은 높은 수준의 생산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용인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생산 증가로 인력난을 겪던 조선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조선업체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도 큰 폭 증가하였다.

전남 주요 조선업체 및 산업단지 생산



자료: 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 주요 조선업체 매출 및 영업이익



자료: 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 사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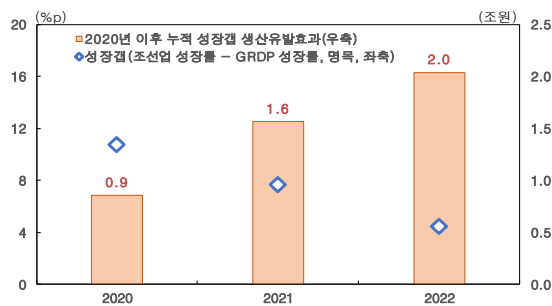
## 【조선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생 산) 2020~2022년중 전남 서남부 지역 조선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유발한 지역내 생산액(명목)은 약 2.0조원(조선업 포함)으로 동 기간 중 지역내 총생산액의 3.5%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 조선업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최근 조선업 호조세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부진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조선업의 실제 생산액(A, 명목)과 조선업이 지역 산업 평균(명목 GRDP 성장률)만큼 성장했을 경우의 생산액(B) 간 차이(A-B)에 연도별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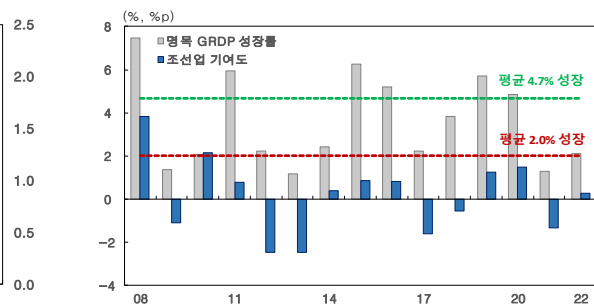
- (GRDP) 2008~2022년중 전남 서남부 지역 GRDP(명목기준)는 조선업의 성장률 기여도가 양(+)인 경우 평균 4.7% 성장한 반면, 기여도가 음(-)인 경우에는 평균 2.0%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간 조선업 업황이 전남 서남부지역 GR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선업 성장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유발 효과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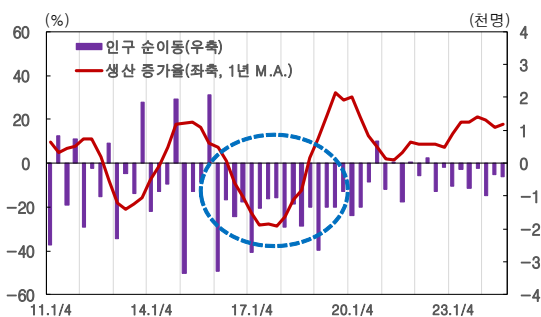
조선업의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성장 기여도<sup>1)</sup>



주: 1) 2022년은 시군 단위 GRDP가 공표되지 않은 관계로 전남 통계를 활용한 추정치  
자료: 통계청, 전라남도,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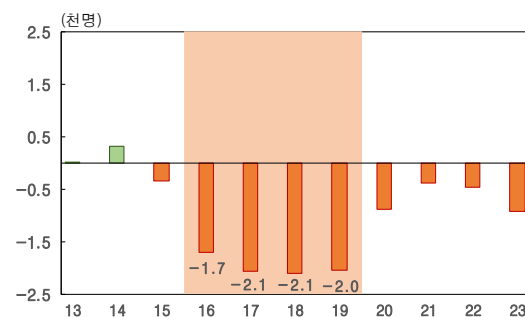
- (인구 유출입) 조선업이 전남 서남부 제조업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조선업 업황은 인구이동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2019년중 조선업 불황기에 '직업'을 사유로 연간 2천명 내외의 인구가 전남 서남부지역에서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당시 조선업 침체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구직자들이 여타 지역으로 이동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 서남부 조선업 생산 증가율 및 인구 순이동



자료: 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 통계청

전남 서남부 직업을 사유로 한 인구 순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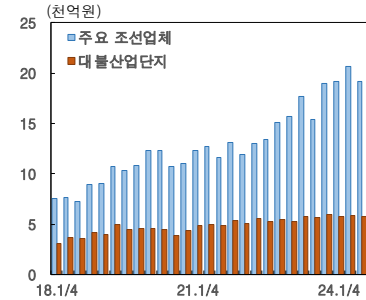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전남 서남부 조선업 관련 주요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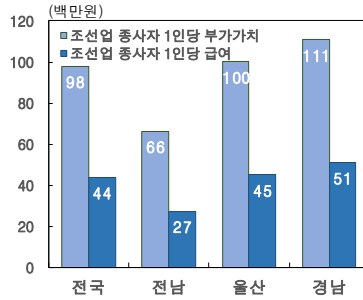
-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대형 조선사와 중소기업 간 생산, 수익성, 임금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체들의 경쟁력 개선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체를 발굴하여 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남 주요 조선업체 및 대불산단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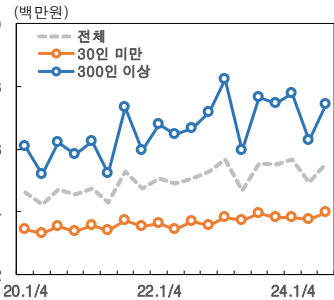
자료: 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선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및 급여액<sup>1)</sup>



주: 1) 2018~22년 기간 평균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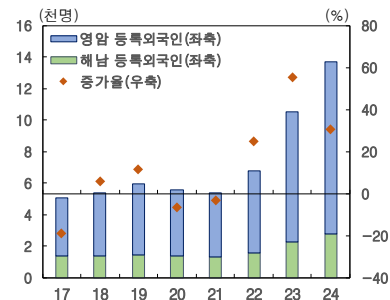
조선업체 종사자 수별 월별 임금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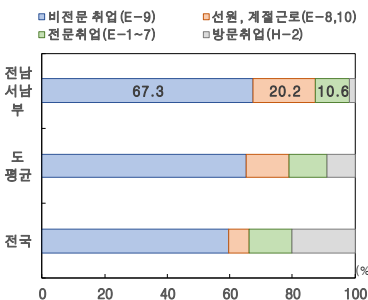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및 숙련화 유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짧고 저숙련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숙련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광역형 비자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남 서남부 조선업 밀집지역 등록외국인 수 추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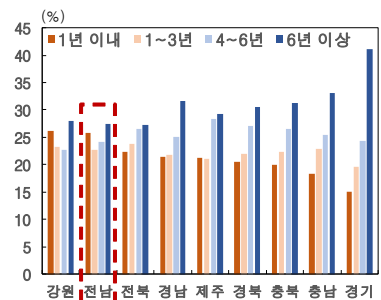
주: 1) 2024년은 11월말 기준  
자료: 법무부

외국인 취업 관련 비자 현황



자료: 법무부

지역별 외국인 체류기간 비중<sup>1)</sup>



주: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 (업체간 안정적 협력 관계 구축) 국내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 및 기자재 업체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해외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내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